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는 경화각 모두의 참여를 일이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주보는 성실해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 (본사편집실)

파출소 고무탄총 지급 국민 생존권 위협

경찰은 고무탄가스권총을 대학 가주변 파출소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고무탄이 머리카락이나 손가락 끝에도 맞을 경우 목숨을 앗아 갈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원씨 총기 사냥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또 다시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조치를 명백한 국민에 대한 생존권 위협임을 아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경찰의 총기 사용에

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며, 단지 과실 책임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만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 원인인 경찰관법에 대한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무탄가스권총 지급을 절대 반대하며, 경찰은 지금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치안유지에 온 힘을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익
(경경대 무역·1)

진정한 대학인·지성인의 모습 절실 갈수록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학문화

대학에 들어온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간에 겪었던 일들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보다 많았다.

그러나, 1년동안 보고, 듣고, 겪어본 대학의 문화풍조는 실망스러운 것들이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사치는, 많은 사람들이 깨는 바이지만, 일반 사회에서의 사치 못지않게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 더불어 외국의 문화가, 특히 모방의 형태로 널리 퍼져있다. 머리모양새, 옷의 스타일, 가방에 새겨져있는 문구들, 대부분 외국 잡지에서 본 수 있는 것들이다.

학생은 순수하고, 정열적이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은 사회를 받고 있는 세대인데, 대들보가 썩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사회는 끝장이다. 사회의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학생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들은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해야 하는 사명,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완수하는 사명을 가진 지성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자. 그래서 멋있는 대학생의식있는 지성인이란 말을 우리

교수·학생 공동참여로 수업의 질 높여야 올바른 강의평가제를 제안한다

대학의 교육적 기능이 대부분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학 교육의 질은 결국 강의에 의해서 좌우되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의 질을 좌우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데 있다.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학습을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은 그것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 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강의는 교수·학생관계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료 교수에 의한 동료평가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러가지 평가가 갖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과학적·합리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서로간의 노력 또한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문제는 강의의 평가결과가 어떤 목적이냐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에 달려있다.

의 스타일, 교수·학생관계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료 교수에 의한 동료평가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러가지 평가가 갖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과학적·합리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서로간의 노력 또한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문제는 강의의 평가결과가 어떤 목적이냐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에 달려있다.

이송주
(자연대 물리·2)

열사의 뜻 못미치는 현실에 분노 초라한 한 노동자의 묘를 다녀와서

'1970년 11월13일 정계천 피복 노동자의 결성을 위해 노력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죽어간 한 노동자가 여기 잠들다' 전래의 열사의 묘비에 적혀있는 추모비 한 구절이다.

1991년 11월13일, 캠퍼스내 초라하게 처진 열사의 분향소를 바라보며 그 안락함을 달랠것 없어 모란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전열사의 묘를 찾았다.

마지막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길을 올라 바가지택시요금까지 당하며 도착한 열사의 묘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작고 초라한 바로 그 '노동자'의 묘였다. 어쩌면 애초에 '그래도 위대한 열사의 묘인데' 하며 크고 웅장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잘못되었으리라.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는...

노릇할 때대로 가식없고 꾸밈없는 죽어서도 노동자는 생전과 다를없는 바로 그대로의 모습을 누릴 수 있었다.

분향을 하고 같이 간 친구와 '해방을 향한 진군'을 주제로 부르면서, 몇몇이 가져다 놓은 시든 국화꽃을 바라보며 열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22살때 죽음을 맞았으니 살아계셨다면 43세의 중년으로 다가올 아저씨.

열사의 뜻은 어디에서 떠돌고 있는지 총액임금제, 제3자 개입금지 등 노동악법에 시달리는 현실은 열사의 면전에서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송치욱
(정외·1)

행정부서 책임감있는 태도 필요 오후5시 이후 증명서 발급 안돼

경희는 대학이며, 대학은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순수한 학문의 전당이다. 따라서 대학의 모든 행정기구나 시설은 학생들의 편의와 학비관리를 충분히 해주도록 존재·위치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을 쓰는 본인은 11월12일 오후 5시경까지 대학 본부내 1층의 모래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 갔으나, 행정부서에서는 해 줄수가 없다고 한다.

이야기인즉, 컴퓨터를 꺼버렸기 때문에 발급할 수가 없으며 일찍 와야지 왜 늦게 왔느냐며 내일 오라고 하였다. 그 무슨 풍만지같은 말인가? 5시30분에 정구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정규 수업이 5시20분에 끝이 날진대, 대학이하의 행정수준에서도 나올 수 없는 계변을 우리 캠퍼스에서 내 놓고 있음은 슬픈일이다.

그것도 상당히 급한 시각을 다루는 일에서 사정을 해 보았으나, 내일 오라는 냉랭한뿐이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떠나 경희라는 공동의 구성원이란 사정을 봐 줄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행정부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4시문 문을 닫아 버리는 학생식당과 학생복지관과 관련된 우리들의 자치기구에서도 주장을 구할 못하는 일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아무튼 위에서 거론한 문제들은 물론 한 단면일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점들이 친절하고 성실성의 외적 학사 업무와 학생들 편의를 보주는 대부분의 다른 교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본다.

안호빈
(사회대 행정·3)

11월주제 '시간'

신중의 신인 인드라(帝釋天)가 악마의 왕인 브리드라 용을 물리친 후에 기고만장해 저서 신들의 처소인 궁궐을 다시 짓고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명을 받은 건축신 비슈바카르만은 일 년 동안 짓먹던 한가치 짜내며 평정하 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전하나를 지어서 바쳤다.

그런데 인드라가 이것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이 세상에 짝을 찾을 수 없을만큼 가장 크고 화려한 궁궐을 짓기를 원했다.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린 비슈바카르만은 창조신 브라마에게 가서 불평을 털어냈다. 이 불평을 듣고 브라마신은 최고의 신 창조주 비슈누와 함께 (브라마 자신은 비슈누 신의 한강 도구에 불과한데) 도와주기를 약속했다. 그래서 비슈누는 인드라에게 한수 가르치기로 작정했다.

인간을 위한 신화 한 토막

어느 좋은 날 인드라는 거지 소년의 방문을 받는다. 인드라를 겸손케할망으로 일부터 이런 모습을 취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비슈누는 인드라를 보자 "야아"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수많은 인

108년이지만 이런 브라마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간 생겼곤 하지. 너같은 인드라는 물론이고 브라마의 숫자에도 끝이 없지. 매순간 매순간 브라마 하나 인드라 하나를 품은 수많은 우

왔다가 꺾고 터지는 거야. 너 이런 우주를 쉼수 있겠어? 과거 현재를 통해서 우주의 출몰했던 신들이 맞이아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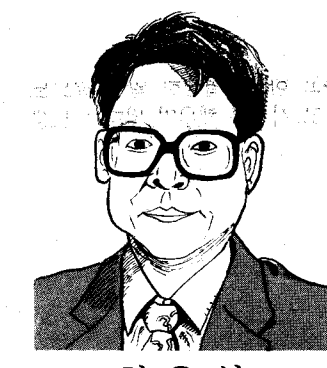
이 얘기를 듣자 인드라는 괴롭 정신이 들었다. 자신의 교만과 야망의 무성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건축가 비슈바카르만에게 다시 불려서 수고를 치하하고 큰 상을 내렸다. 인드라가 지금 여기 온다면 어떤 혼수 한미랄까? 다음과 같은 한미랄까?

"야 인간들이 잘해야 백살도 못살다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잖아. 잠시 하던 일 멈추고 내일 들어라. 네 짧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 나 인드라 만큼 할 수 있어? 나보다 큰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하우성
(문리대교수·철학)

소년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궁전의 큰 연회장에 갑자기 개미군단의 행진이 나타났다. 폭을 다섯자로 하고 죽 정렬한 채로 바둑을 가로질러 행진하기 시작했다.

소년이 이를 보고 잠시 있다



가 이윽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큰 웃음을 터트렸다.

인드라가 그 까닭을 물은 즉, 소년 왈 "인드라야, 내가 이 개미군단을 보고 있는데, 이 개미 한마리 한마리가 모두 한때는 다 너같은 인드라였었지. 견고하고 위대한 형위를 많이 해서 너처럼 신들의 왕 자리에 올랐던 작자들이지. 그랬는데 수많은 재생과 윤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시 개미로 변했다. 이 군단은 네 전신인 인드라의 군단이지..."

이 얘기를 듣자 인드라는 괴롭 정신이 들었다. 자신의 교만과 야망의 무성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건축가 비슈바카르만에게 다시 불려서 수고를 치하하고 큰 상을 내렸다. 인드라가 지금 여기 온다면 어떤 혼수 한미랄까? 다음과 같은 한미랄까?

"야 인간들이 잘해야 백살도 못살다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잖아. 잠시 하던 일 멈추고 내일 들어라. 네 짧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 나 인드라 만큼 할 수 있어? 나보다 큰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이날 행사는 우리가족의 이해와 감성비판 주제와 관련 이외에도 열정형, 백남준 교수 등 본교 6인교수의 음악화도 있을 예정이다.

경영학과 '모의노동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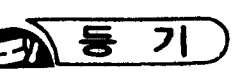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는 오는 19일 오후12시30분 공대시청 각실에서 '제2회 모의노동쟁의'를 개최한다.

연출을 맡은 조용기(경영·3)군은 "현대중공업 폴리탄투쟁을 모델로 삼은 가상사나리오 '현우조전'의 노사대립을 통하여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을 결말로 이끌어 내기 위한 무대'라고 말했다.

국문과 '가을학술 답사'

국문과 학생회는 20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춘천, 홍천지역에서 "가을 학술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는 어학부, 교정부, 현대문화부로 나뉘어 실시되며 현대문화부는 춘천지역에서 본교 국문과를 졸업한 소설가 전상국(강원대 교수)등과 현대문화에 대한 심포지움을 어학·교정부는 홍천지역에서 마을사람들로 부터 설화·방언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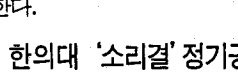


동문모임

여의도도 동문회

【서울캠퍼스】 ▲마포·서울여고=오는 18일 늦은5시 불새다방 졸업생 환송회 ▲제주의우회=오는 19일 늦은6시 국전 졸업생 환송회 ▲무등회=오는 19일 까미유플로텔 졸업생 환송회 ▲면목고=오는 20일 늦은5시30분 경희회관 졸업생 환송회 ▲상은회 의화관 동문회=오는 20일 늦은5시30분 동해해물탕 ▲여의도고=오는 20일 늦은6시 안개 졸업생 환송회 ▲조대부고·여고=오는 21일 늦은6시 국전 졸업생 환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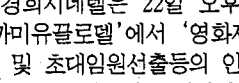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오현고=오는 18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화곡·금곡고=오는 18일 늦은5시30분 공대식당 ▲강릉명륜고=오는 22일 늦은6시 쓰리나인 ▲명신고=오는 20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한성고=오는 21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인창고=오는 22일 늦은5시30분 공대휴게실 ▲삼척고=오는 23일 늦은4시 서울캠퍼스 정문



동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박혜숙(국문·4) ▲김병우(국문·1) ▲최현숙(영문·4) ▲윤희상(영문·1) ▲오혜정(의상·2) ▲이성문(신상·1) ▲박진우(경제·4) ▲배희정(경제·1) ▲이갑석(경영·4) ▲이진실(서반어·2) ▲박성일(우주·2) ▲김정진(원자력공·1) ▲곽대순(기계공·1) ▲정수미(요공·3) ▲조은영(요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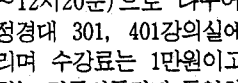


동문모임

분리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하동석(화학·86) ▲박현정(화학·88) ▲전윤식(법학·87) ▲이미선(경영·89) ▲김상수(경영·88) ▲고대영(경영·86) ▲이상민(경영·87) ▲강영자(경제·88)

【수원캠퍼스】 ▲학생증=▲강소현(중문·88) ▲정준화(토목공·89) ▲이용주(조경·88) ▲열·외·지갑=정준화(화학·91) 지



동기

경희시네텔 창립 총회

경희시네텔은 22일 오후6시, '까미유플로텔'에서 '영화제' 평가 및 초대위원선출등의 안건으로 임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본교 국문과 졸업생위주로 시나리오 창작을 해온 경희 시네텔은 지난 달 개최된 '이탈리안 시네마와 강렬한 영화들의 만남'이란 영화제 개최를 계기로 학내 동아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경희시네텔은 관심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늘 오후4시 문리대 303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SAMSUNG Electronics

꿈이있는도전의세계-휴먼테크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문을 당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는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욕의 현장입니다.

휴먼테크
삼성전자